

“산거기를 바라보며 에루살렘에 임하시라!”

(마태복음21:1)

종교개혁(Zeal Sunday)은 예수님께서 산거기 죽음을 위해 에루살렘에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창시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를 타고 임하셨다는 예수를 믿어(19)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며 환영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었다.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신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버라축축하다.” 호신나 다윗이라는 뜻을 우리들 구원하소서 우리를 자꾸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의 의미”를 말한다. 우리는 여가서 호신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아조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런 자들을 목목히 바라보시며 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크 차이를 본다. 지금 펼쳐지는 이 장면은 보고서는 그 차이가 무슨 그리고 어떤 차이점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고난주간 동안 펼쳐질 우리 주님의 행보의 모습과 특별히 홀고나 언덕에서 산거기에 행하여 일러 줄기사는 모습을 보며 산거기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의 반응을 볼 때, 너무나 크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미 이산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예는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 나 변할되고 돌변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들이 에루살렘에서는 호신나 호신나 부르는데 이모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성전의 지리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산거기도회를 앞두고 이 본문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첫째,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겸손의 마음으로 에루살렘에 임하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의 지위를 내리놓으시고 자신을 바위 이 땅에 앉으실 목적으로 오신 그 시간 자체가 기가 베풀어(17)장 무한한 겸손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특별히(18)은중하는 삶을 통해 보여 주셨다. 이 예수님의 탄압부기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성취였고 주님은 날마다 그의 행보와 화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서서 도록 사셨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주님의 겸손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인 것이다. 오늘 본문 속의 에루살렘 임상의 장면도 주님이 영광하신 개례이(19)입니다. 이 아버지 아버지와 스님 아버지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겸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은 산거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 하신이라 일러오시니(18)은 열에 개례이(19)를 내왕이 내게 일러나니. 그는 겸손하이니라. 공약에 매는 진술의 새끼를 띠고(18)은 하라 하였고(19)라(20)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20)은 행하여도 진영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한(19)은중하는 겸손은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왕께 초대를 받고 왕께 주권을 부여하는 신왕이신 오직 하나님의 분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진영한 승리의 왕으로 산거기를 바라보시며 임하시라고 계신다. 기독교는 늘 승리라는 권을 전제로 신앙생활 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기가 아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산거기(19)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제자들도 이미 승리의 무렵이 보장된 믿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호신나 호신나(19)를 단언하시 못하셨지만, 그 때부터는 자를 때려내 살리기나 산거기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왜 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저들의 그 영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들의 영영과 무한한 조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산거기에 짊어지시어 산거기 주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한 그 산거기의 고공과 진도 뒤에 나타낼 무력의 영광과 그 영광의 기쁨과 영광을 다 이룬 분이었습니다. 저 그렇다면 저와 아버님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과 바로 이 산거기를 통한 영영한 부활의 승리를 이미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참하여 면서 그리고 한 주가 산거기(19)이(20)은으로 이 신앙을 붙들고 다시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19)이(20)을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함께 일하시는 능력의 공동체”

2025년 포어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35)

사랑의 5대 방향: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전회	교회학교		
세력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요방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비나 한국교회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 처 부		창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브미션	박영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아 회 중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타티아 푸를름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거 족 부	최순성 목사(재) 박수진 전도사(재)	시니어지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 령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부활절 연합예배 | 10:00am

2025년 4월 20일

*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 기원 Invocation	인도자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33번 “부활절(1)”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찬송 Hymn	새160장(통150) “목숨에 머물라 Low in the Grave We Lay”
기도 Prayer	김준엽 장로 (Elder Joon Yup Kim)
성경봉독 Scripture	마(Matthew)16:24-26/ 눅(Luke)24:13-17, 25-35
*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을 드리라”(1,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특별찬양 Special Song	클로리아 찬양대 “버어 들로로사” 외
설교 Preaching	“왕을 따르라” / “미물이 도전지 아니하더냐?” Follow the King 김성준 목사
* 축도 Benediction	“Welcome Happy Morning”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서 / Stand if able)

단체 기독교TV(탐임원)나 케이블 채널(487) /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만양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